

광주·전남 전면 등교 무산...9월11일까지 3분의 2만

광주, 전체 초·중·고 제한등교...14일부터 전면 등교
전남, 대부분 밀집도 낮아 과대학교만 제한등교 가닥

광주지역 모든 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더라도 전면 등교는 하지 않고 3분의 2만 등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중인 전남은 대다수 학교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 밀집도가 낮아 과대학교에 대해서만 제한 등교가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이후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모니터링 기간을 9월 11일로 연장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동안 시 교육청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기로 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 4개 학년이 등교수업하는 날엔 2개 학년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월·수·금 등교하고 화·목은 원격수업하는 식으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업이나 학습의 연속성과 방역효과 등을 감안해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등교와 격주 등교를 권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

이던 전면 등교는 일단 9월14일로 2주간 늦춰졌다.

전면 등교가 이뤄지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거나 전체 학생수가 800명 이상인 중학교, 900명 이상인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 역시 교육부 방침에 따라 9월11일까지 3분의 2 제한등교를 실시하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360여 곳과 농·산·어촌 학교는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전면 등교하거나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900명 이상 거대학교 19곳은 제한등교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인원을 결정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특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증상자 등교·출근 중지, 수련회·모임 자제·취소, 친구 소모임이나 집단 PC방·노래방·영화관 이용도 최대한 자제토록 당부했다.

등교 초기 학교급식은 간편식을 제공하고, 교실배식으로 전환하거나 좌석배치를 조정하고, 식탁 칸막이, 배식 대기 시 양팔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 개학일이었던 지난 5월 20일 무안 일로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입실 전 발열검사를 받는 모습.

간격 유지, 식사 중 대화 금지 등 급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학원방역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체 초·중·고교 학생수는 광주

가 17만6400명, 전남이 20만6943명에 이른다.

조인호 기자

영산강 하류 시·군, 상류서 내려온 수해쓰레기 처리 비용 '골머리'



전남 목포시 영산강하굿둑 안쪽이 상류에서 밀려든 쓰레기로 섬을 이루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하류에 밀려든 수해쓰레기 처리에 비용이 걸린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처리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1만 4300여t 쓰레기, 목포·무안·영암 등 대대적 수거작업
전남도 "신속수거·처리비용 지원 절실...국비 40억 원 요청"

현재 영산강 하류에 적체된 1만 4200여t의 쓰레기를 목포, 무안, 영암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영산강 하류 수해쓰레기는 상류 특별재난지역인 담양, 장성, 나주, 화순에서 발생해 하류 지역인 목포, 영암, 무안에 집중적체돼 하류 3개 지자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우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가용 예산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쓰레기 이송·처리 비용은 국비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구례 침수피해 현장 방문 시, 영산강 하류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전남도는 잔여 수해쓰레기에 대해서도 시군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도와 시군은 지난 18일까지 인력 100여명을 비롯해 영산강 환경정화선 6척, 장축크레인 10대, 포크레인 10대 등 수거장비를 총 동원해 2535t(수거율 18%)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쓰레기는 초목류가 주를 이루고 생활쓰레기가 혼재돼 있어 영산강 하굿둑 수문을 통한 바다 유출을 방지해야 하고, 부패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